

## 모범답안 \_ 인문사회계열(오전반)

### -문항 1-

(가)에서는 인간도 자연의 일부분으로 자연에 속하는 만물과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한다. 동양 사상에서는 특히, 자연이라는 커다란 질서 속에서, 인간이 이를 벗어나지 않고, 자연을 존중하는 것을 요구한다.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한 배려와 존중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나)에서는 인간중심주의가 자연과의 조화를 무시하고, 자연이라는 거대한 질서에 반하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에서는 오직 인간만이 지구상의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고 참된 가치를 지니는 존재라고 말한다. 인간은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고, 또, 이를 이용해 도덕적인 실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능동적인 주체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인간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가)에서 만물이 서로 의존하며 살아간다고 했던 것으로 볼 때,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도 그 자리에서 소중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존재이기에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무시한다면,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겠지만, 자연이 인간에 의해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질서가 무너지고 인간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다)에서의 생태중심주의는 (가)의 관점으로 볼 때, 자연을 지나치게 추구해서 인간의 자연에 대한 마땅한 역할까지 부정해버린다는 한계가 있다. (다)에서는 자연은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인위적인 개입을 부정하는 것이다. 존엄한 가치에 대한 간섭을 막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가)에서의 만물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며 조화를 유지한다고 했기에 인간이 자연에 줄 수 있는 마땅한 영향을 부정하는 것이다.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살려면 인간도 자연의 존재들에 영향을 주고받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상생을 추구하는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라)의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가)에서처럼 자연은 그 안의 여러 존재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생하는 관계를 갖고 있다. 이는 현실에서도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영향이 자연이라는 집단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뜻한다. 인간이 (다)에서처럼 극단적으로 자연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조화가 깨지겠지만, 인간이 미치는 영향이 자연전체로 볼 때 좋은 결과를 내게끔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현재의 풍족한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자손과 유한한 자연에 대한 배려까지 생각했기에 자연과 긍정적인 조화를 이룰 것이다.

## -문항 2-

한국 사회의 인터넷 문화는 너무나 어린 시절에 인터넷을 접해서 부작용이 많다는 문제와, 인터넷 이용과 그 활용이 특정 연령대에 쏠려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들은 10대 이전의 어린이 연령층과 50대 이상 장 노년층에서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일단, 10대 이전의 어린이 연령층은 그림1에서와 같이 인터넷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 40대 성인보다도 조금 더 높은 수치인 85.4%를 기록한다. 이는 현대 한국 사회의 어린이 인터넷 이용자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런데, 그림2를 보면, 이렇게 인터넷 이용이 많은 10대 이전의 어린이 연령층이 예절 노력을 인터넷상에서 절반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대 이후의 많은 연령층보다 매우 떨어지는 수치로, 아직 인터넷 사회에 대한 예절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보통 돌발적이고 흥미로운 것만을 찾는 어린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 인터넷의 예절 문화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며 어린 아이들의 성향도 예의 없고, 무분별한 행동을 하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어린 연령층에 대한 부작용은 이에 그치지 않고 그림 3에서 또 볼 수 있다. 그림 3에서 만7~9세 사이의 어린 아이들일 때 인터넷을 처음 접했던 사람들이 인터넷 중독자가 되는 확률이 높았다. 결국, 10대 이전 아이일 때 인터넷을 많이 접하면 나중에 인터넷에 중독될 확률이 높은 부작용이 있는 것이다. 또한, 어린이들은 커서 그림 4에서처럼 의도적 인터넷 일탈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그림 4를 보면 10대, 20대의 일탈 행동률이 높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에 중독될 확률이 높은 어린 인터넷 이용자들이 그림 2처럼 인터넷에서의 예절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등의 일탈 행동을 보이는 것은 가능성 높은 일이다. 어린 아이들의 인터넷 사용이 미래의 인터넷 일탈 행동자를 양산한 것이다.

그리고 장 노년층의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의 소외의 문제는 그림 1에서처럼, 인터넷 이용률 자체가 저조한 것으로 먼저 파악할 수 있다. 이용률 자체가 저조한 것은 표1에서 정보화 수준으로 알 수 있는데 노인층은 대부분 나이가 들수록 정보의 접근이나 활용 면에서 떨어졌다. 이는 인터넷의 접근 자체가 복잡해서 노년층이 이용하기 불리하기 때문이다. 노년층은 자신들이 활용하던 시대와는 다른 정보지식사회에서 그들에게는 생소한 첨단기기를 이용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림 5에서 인터넷 이용목적이 여가활동이나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노년층은 사람 대 사람 간 소통을 중시 여기는 사회에서 살아와서 이런 인터넷이 생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린 연령층, 즉 10대 이전 연령층의 인터넷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린이들이 심야 시각에는 사용할 수 없게 해서 여가시간에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림 1에서처럼 과도하게 높은 인터넷 이용률도 더 떨어질 것이고, 그림 3에서의 인터넷 최초 이용 시기 연령도 높아질 것이다. 또, 장년층에게는 그림 5처럼 여러 가지 인터넷 이용에 대한 안내를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한다면 표 1과는 다르게 정보의 질적, 양적인 활용률이 높아져서 장 노년층의 정보화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